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

사무엘하 7:1-17, 요한복음 2:13-17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시대의 흐름을 타면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된다.

1. 다윗은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

- (1) 출애굽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은 여호와를 설명하는 성막이었다.
- (2)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시대가 변했는데 성막은 그대로였다.
- (3)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인 성전을 먼저 깨달은 것이다.

2.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언약으로 주셨는가?

- (1) 지금까지 받은 축복이 있다. (목동을 불러 왕으로 세우시고 지키심)
- (2) 앞으로 받을 사실적인 축복이 있다. (이름, 보호, 후대)
- (3) 영원한 축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조상)

결론 : 시대적 흐름을 발견하여, 응답을 미리 받는 자가 되라. 복음을 목상하고, 예배를 누리고, 현장에서 기도하면, 시대적인 요청이 발견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의 종들이 주의 전에 왔나이다. 마음을 준비하고 열었사오니, 심령에 주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종에게는 성령의 충만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주의 말씀을 먹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사람이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애를 쓰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가만히 있는데 응답이 오는 사람도 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대적인 흐름을 타느냐, 못 타느냐 하는 차이이다. 경제의 역사에서 보면, 시대의 흐름을 알고 투자한 사람과 흐름을 읽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증기선이 나왔는데 ‘배가 어떻게 수증기 같은 것으로 가느냐,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범선 기술 개발에만 투자했던 사람은 망했다. 타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필름카메라 회사는 기존의 기술에만 의존하다가 디지털카메라라는 흐름을 못 타서 어렵게 되었다.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대의 흐름을 발견한 사람들은 성경과 교회사의 주역이 되었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응답의 자리에 있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도 응답의 주인공의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한다. 같이 예수 믿으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문화, 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캄캄한 삶을 살며, 어떤 사람은 발전하고 어떤 사람은 퇴보한다.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란다.

1. 다윗은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은 사람이었다.

(1) 본문은 그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른 날 400년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여호와를 전 세계에 설명해야 하는 것이 출애굽 당시의 시대적인 요청이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언약궤를 모시는 성막이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시대였지 않나?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낸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이었을 것이다. 농사도 짓지 않았다. 무슨 사업을 한 것도 아니다. 그들이 무슨 생산활동을 한 적이 없다. 겨우 탈출해서 가나안 복지(福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길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최고의 문화인 성막을 만들어낸 것이다.

(2) 그런데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이후에는, 거의 500년이나 지났는데도, 500년 전의 문화였던 성막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더 정확히 보면, 500년 세월 속에 성막이 다 낡아 버렸다. 찢어지고 비도 새고 색도 바래 버렸다. 집도 헌 집이 되면 낡아지는데, 천막이 오죽하겠는가. 500년 지난 후의 시대에는 흐름이 잘 안 맞다는 말이다. 복음을 제대로 전 세계에 설명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여호와와 이름을 이 시대에 최고로 높여주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도 500년 전에 지어놓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자기 집들은 다 잘 짓고, 왕궁도 세우고 그랬는데, 언약궤는 500년 전과 같이 천막에서 비바람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렘넌트 다윗이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목상하고 복음을 깊이 누렸던 인물이다. 손에 공교함과 마음에 성실함으로 키움을 받은 인물이었다(시78:70-72).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읽어낸 것이다.

① 고전2:10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다. 다윗이 복음을 목상하다가 기름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소원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고 언약적인 한을 품은 그 때부터, 언약궤를 두고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것이 대체로 15세 쯤 되지 않았나 보고 있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것은 30세였다. 예루살렘에서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은 37세였다. 말하자면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 22년 동안 계속해서 언약궤를 품고 기도했다는 말이다. 이것을 보고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를 지속하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집이 50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의 법궤가 다 찢어져서 비가 새는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늘 기도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생각했다. 이것을 두고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과 같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② 다윗이 20년 넘게 언약궤를 품고, 자기 민족이 언약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성전에 대한 기도제목으로 잡히기 시작한 것이다. 2절에 보라.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 낡아빠진 그 장막 속에 있구나’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자기만 좋은 곳에 사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황송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너무 감동하셨다. 감격하셨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감동해서 하신 말이다. “내가 출애굽 때부터 장막과 성막에서 지냈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누구에게도,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네가 오늘 나를 위해, 먼저 내가 스스로, 내 집을 짓고 싶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감탄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버렸다. 성령충만하니까 이 정도로 응답을 미리 받고 깨닫게 된 것이다. 오늘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게 되는 날 되시기를 바란다.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 것처럼, 자녀의 마음도 먼저 읽으면 효도를 받지 않겠나. 부모의 마음을 먼저 읽고 충축하는 사람이 효자 아닌가.

2.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 언약을 주셨는가?

이것이 8절 이하의 말씀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개인과 가정이 모두 이 축복을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

(1)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동으로 있었는데 내가 왕으로 선택해 주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승리하게 하신 것,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2) 그리고 9절부터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사실적인 약속들이다. “세상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말이다. 시91:14에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신 세상이 감히 우습게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말씀이다.

(3) 11절에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원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계획을 붙잡으면 된다. 천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시대적인 요청과 흐름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어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고백을 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약4:7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원수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이 회복되게 되어 있다.

(4)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여호와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줄 것이다.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줄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가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주역이 되고, 그의 사역과 미래가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 개인과 후대, 가정과 가문 이,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5) 그리고 1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랫동안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낼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안 끝날 것이라는 말도 아니다. 마1:1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하자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을 누리고, 백성과 나라가 복음을 회복하도록 기도한 다윗은,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다윗이 감히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와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데 사용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유승환 집사님이 한꺼번에 자녀 둘을 선물받았지 않나? 그것도 남매를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가. ‘아이고, 둘이나 어떻게 키우겠나, 힘들 텐데.’ 걱정했었는데, 어제 첫돌 감사예배를 드렸다. 잘 컸다. 울지도 않고, 무대 체질이 되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웃는 것이다. 너무 기특하고 귀여웠다. 후보를 만들어온 것을 보니까, 부부와 청년들이 만든 모양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진송을 다 적어왔다. 나는 설교만 하라고 (웃음) 처음에는 섭섭했는데, 가면서 보니까 너무 좋았다. 나중에는 서약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들을 언약 중심으로 키우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겠다 하고, 아빠 아무개 엄마 아무개라고 서약했다. 축복이 저절로 나오지 않나. 증조할머니가 우리교회 초창기 신자였다. 어제 그래서 그 말을 조금 했다. 이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려운 환경에서 믿었다. 부인 패는 사람은 오늘로 끝내시기 바란다. 예수 믿는다고 (그 집에서 우리 권사님을) 얼마나 두드려 뺐던지. 우리 유 장로님은 그때 안 맞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맞았던지, 안 죽을 만큼만 맞았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셨다. “목사님, 그리고 나서 나는 자유인이 됐어요.”

‘지독한 년.’이라면서 몽둥이를 버리고 나가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다시는 뒤라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교회로 오셨다. 살아계셨더라면 80세 쯤 되셨을 텐데, 좀 일찍 천국에 가셨다. 심방을 가려고 밖에서 ‘권사님, 심방 같이 가요’ 하면, 빨래더미를 버려두고 바로 “네!” 하시고는, 5분을 기다리기 전에 나와서 함께 가 주셨다. 어제 첫돌을 맞은 쌍둥이는 그분으로부터 4대 째다. 같은 4대 째였던 요셉처럼 되기를 축복했다. 할머니보다 더 언약을 잘 붙잡고, 자기 후대를 그렇게 키우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마음에 참 기뻐다. 우리교회가 47년이 되었다. 그러면 언약의 뿌리,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한다.

앞서서 응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란다. 다윗이 하나님의 소원을 앞서서 눈치채고 기도했다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1) 첫째,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라는 것을 누리게 된다면, 시23:1의 말씀처럼,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는다. 여호와만으로 충분하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2) 두 번째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의 소원은 시27:4의 말씀대로, ‘평생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그의 이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다. 복음으로 충분함을 누리야 한다. 복음 자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한다. 시84:20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은 주의 전에 와서 절대 싸우지 마라. 절대 다투지 마라.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마라. 이곳은 하나님을 모신 궁전이다. 다른 곳에서 천 날을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주의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누림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3) 그리고 현장에서, 여호와와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 되심을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순간순간 들어가시기 바란다. 다윗은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처한 상황을 여호와를 누리고 의지하는 기도로 바꿨다. 시18:1-2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여러분이 평상시 삶의 리듬을 예배와 기도로 지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대적인 요청이 포착될 수 있다. 알게 된다. 다윗이 성전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알게 된 것처럼, 그런 축복을 여러분도, 나도 받을 수 있다. 내가 일하기 전에 응답이 미리 와 있는 것이 발견될 수 있다. 모든 참사랑 가족들과 우리 램뉘트들이 바로 이 응답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두고 기도하다가, 주의 말씀을 다시 찾아,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위대한 신앙을 본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전은 우리 자자손손 후대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